

2023학년도 전남과학고 제2회 국외 과학관 체험학습 성료

세계적 인재 육성 위해 방학 기간 싱가포르에서 체험학습 3박 5일 과정으로 학생과 지도교사가 1:1로 팀 이뤄 진행

전남과학고등학교(교장 류왕선)는 세계적 인재 육성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에 '제2회 국외 과학관' 체험학습을 싱가포르에서 실시하여 이목을 끌었다. 주요 일정으로 3박5일 동안 세계 10위권 대학인 국립 싱가포르 대학(NUS), 아시아 최고의 공과대학인 난양공과대학(NYU), 과학기술 최상위 학교인 과학기술학교(SST), 사이언스 센터를 방문하였다. 총 3박 5일 과정으로 학생과 지도교사가 1:1로 팀을 이뤄 진행했는데, 발명품 7팀, 전람회 4팀, 총 11팀이 국외 체험학습의 기회를 얻었다. 위 11팀은 2024학년도 전남대회(전람회, 발명품) 출품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며 학교는 대회를 넘어, 전국대회 '특상' 이상 수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IB 교육과정을 수료한 한국인 대학생(화학공학과)과의 만남을 계획해 캠퍼스 투어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해외 최상위권 대학의 장점과 진학 방법, IB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배웠다.

난양공과대학은 특별히 사전에 입학처 담당자와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중점으로 입시설명회와 강의, 실험실 투어를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Justin Song 교수 강의, 실험실 투어, 대학 연구성과 발표에 참여하여 영어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 대부분이 대학 투어를 통해 자신의 세계관이 넓어졌으며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고 밝혔다.

과학기술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한 수업 모델 참관, 해당 학교 재학생들의 연구 성과물 공유, 사이언스 센터 전시물에 대한 교사와 학생 1:1 팀 탐구활동을 하였다. 향후 과제인 전람회와 발명품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출품작을 알차게 준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체험학습에 참여했던 서지민 학생은 'SST에서 봤던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연구 과정 진행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가설 내용을 그래프와 표로 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는 부분이 인상 깊었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자신의 보고서에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현서 학생은 'NUS와 NTU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싱가포르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여정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두려움 없이 세계에 발을 딛고 달려 나가는 분들이 존경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자신도 대한민국을 넘어 넓은 세상에서 과학 인재들과 함께 공부하는 꿈이 생겨 체험학습 이후 국외 학교 입학이나 대학원 진학 방법을 찾고 준비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국외 과학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담당한 김양우(전남과학고 과학창의부장) 교사는 '학생들이 세계 최상위권 대학을 직접 경험하고 글로벌 과학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 점에서 의미



가 크다. 특히 난양공과대학 같은 대학에서는 과학 관련 대회 등 창의적 인재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전람회와 발명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전남과학고가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자평했다.

전남과학고는 2023학년도에 발명품 대회

에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전국과학전람회에서 특상 1팀, 우수상 4팀, 장려상 1팀이 수상을 받았다. 이번 국외 과학관 체험학습을 시작으로 2024학년도에도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학생, 교사 모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영암교육청, 2024. 연구학교 교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수)은 지난 19

관내 초·중 연구학교 교원 224명 대상

일(월)부터 21일(수)까지 관내 초·중 연구학교 교원 224명을 대상으로 연구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영암교육지원청은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구축과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위해 관내 14개의 초·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였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향후 2년간 △학습활동브리모델(3교) △소규모 공동교육과정(7교) △다문화 감성교

육(2교) △독서·토론·글쓰기(2교)를 통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한 미래 학교 교육의 구체적 역할을 모색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2024학년도 새학년 집중 준비기간을 활용하여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뉴노멀시대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설계를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영암=조대호기자

순천교육청, '사랑의 줌도리 운동' 펼쳐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윤)은 25일 '사랑의 줌도리 운동'을 통해 모금한 성금 4,381,000원을 관내 저소득 학생들에게 전달했

다.

올해로 19년째 진행되는 '사랑의 줌도리 운동'은 순천시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실시하게 된 성금 모금 활동으로 순천교육지원청 직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매년 저소득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사랑의 줌도리' 지원 학생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있으며, 2월에 관내 13명의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공정성 '강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위촉, 운영 내실화 통해 교육력 회복"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한 학교 교육력 회복에 힘쓴다.

전남교육청은 19~21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 21~23일 영암 호텔현대비아라한에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열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 절차에 대해 논의한다.

전남교육청은 현재까지 22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116명을 위촉했으며, 퇴직 경찰관과 퇴직 교원, 청소년 심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비롯해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등 16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



화하고 학생들 간에 관계회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 특색교육 아토피 학생 유학 설명회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 마련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양)은 오는 28일 15:00에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장성 특색교육 아토피 학생 유학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소멸 심각성에 따른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고민하는 것에서 출

발한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작은 학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장성군만의 특화된 축령산 편백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아토피 피부염으로 힘들어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그린테마리프스쿨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장성=김승권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